

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, 호남권 유일 권역별 지원사업 선정

-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'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'로 지정
- 성남, 대구, 부산 이어 2차 지정... 호남권 고령친화기업 지원 확대 기대돼



▲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전경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(센터장 오창명)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.

앞서 1차로 지정된 성남, 대구, 부산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정으로, 호남권에서는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유일하다.

이 사업은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중앙정부-지자체 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권역별로 고령친화제품 기술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.

거점기관에서는 고령친화우수제품(S마크)* 지정 여부에 반영되는 사용성 평가결과 보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령친화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**고령친화우수제품**: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고령친화 품목으로서 고령자의 정신적·신체적 특성을 배려해 조작과 사용이 편리하다고 선정된 우수 제품.

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**2024년까지 총 3.4억 원**(국비 2억, 민자 1.4억)의 사업비를 배정받으며 **△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 △리빙랩 기반 기술 지원 △고령친화기업 대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△고령친화제품의 체험 홍보관 운영** 등을 수행한다.

아울러 신기술 개발 또는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고령친화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인증 획득, 품질 강화, 글로벌 역량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.

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**공인 사용성 평가 전문 특화 기관으로 인정받게** 되면 지역 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인증받기 위해 다른 지역 기관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.

특히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기업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라이프케어 로봇 및 코스메디케어 산업기반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**평가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어**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.

오창명 센터장은 “이번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”이라며, “광주광역시 민선 8기 전략산업인 메디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첨단기술 실증 도시 조성에 발맞추어 지역 내 고령친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힘쓰겠다.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2013년 지역 고령친화산업 양성과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후 서비스모델 발굴과 판로 개척 지원, 지역특화 분야 육성 등을 통해 **실질적인 지역 거점으로 기여해왔다.**